

연민의 삶: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5:31-46

최근에 저희 모두는 중부 텍사스에 일어난 기록적인 홍수로 인한 피해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지역은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20 인치 (50 센치미터) 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달루페 강의 경우에는 26 피트 (약 8 미터) 이상 범람했고, 이로 인해 최소 134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00 명 이상이 아직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 하나는 과달루페 강을 따라 위치한 <캠프 미스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독교 캠프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캠프입니다. 한밤중에 홍수가 나서, 숙소 건물들이 물로 차오르고, 그래서 오밤 중에 아이들과 카운셀러들은 숙소에서 빠져나와 지대가 높은 곳을 향해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이미 망가져있고, 전기는 끊겨서 앞은 잘 보이지 않고, 통신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결국 어른들과 아이들을 합쳐 스물여덟 명이라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한 복판에서, 여러 아름다운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 중 하나가 이 캠프의 오랜 기간 동안 디렉터로 섬기고 있던 **딕 이스트랜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 해 70 살이 된 이 분은 홍수가 났다고 높은 곳으로 도망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오히려 범람하는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악천후의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손자가 나중에 공영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할아버지가 자연사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방식이 유일했을 거예요—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던 아이들을 구하면서 죽는거요.”

왜 그날 밤, 아비규환이 따로 없던 그 밤에, 딕 이스트랜드는 어떻게해서든 아이들을 구하려고 사투를 벌였던 걸까요? 단순히 용기가 넘쳐서 그랬을까요? 정의감이 불타서 그랬을까요? 자신이 캠프 디렉터라는 책임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혹은 영웅심에 나중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에게는 연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연민 Compassion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는 연민을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에서는 연민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히브리어로 ‘연민’ 또는 ‘공휼’을 뜻하는 단어는 라하뮴(רַחֵם, rahămîm)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의 뿌리는 레헴(רֶחֶם, rechem)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연민은 마치 어머니가 연약한 아기를 품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연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σπλαγχνίζομαι, splanchnizomai)인데요, 그 문자적인 뜻은 “내부 장기가 움직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렸거나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고통은 단순히 여러분의 머리에서만 느껴지는 차원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고통이 온몸으로 느껴지겠지요. 가슴도 미어지고, 손도 떨리고, 속이 뒤틀리고, 눈물도 멈추지 않는 그런 고통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연민’은 바로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온몸으로 느껴지는 감정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연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감정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딕 이스트랜드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단지 어린 여자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는게 너무 불쌍하다고 감정적으로 느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애타는 감정은 그가 물속으로 뛰어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없던 힘도 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연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끈 원동력은 연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6 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스플랑크니조마이),...” (마 6:34).

그러한 연민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먹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을 보면서, “아, 저들이 배가 많이 고프구나. 그걸 보니 마음이 아프네.”라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저들의 필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난 그분의 연민의 마음이 그분을 **행동하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구절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잘 아시는 요한복음 3:16 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단순히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많고,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는 저희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품어주셨기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연민의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렸는가?

나는 언제 내 이웃이나 다른 성도님들, 혹은 내 가족을 위해 가슴이 아팠던가?
분노의 감정에서가 아니라 연민의 마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연민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계속되었지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34)

이 역시 연민의 마음에서 불어져 나온 말씀 아닌가요?

이처럼 연민의 마음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중심이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연민의 마음이 우리 삶과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5)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31-46** 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올텐데, 그 때는 사람들을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과 염소 모두 놀랐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그룹 모두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바꿔 말하면 이렇게입니다. “예수님, 그게 주님이신 줄 알았으면 당연히 도와드렸지요! 당연히 물도 떠다드리고, 당연히 좋은 것을 드렸겠지요.”

하지만 둘 다 몰랐다는게 핵심입니다.

양쪽 모두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연민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몰랐다는 것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여준 연민의 모습들이 굳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혹은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조건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도운 것입니다. 바로 **레헴(rechem)**—연약한 아이를 본능적으로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려는 깊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산토스에게 연락해서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또 기도제목이 있는지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새로 엄마가 되다보니 아직 많이 긴장하고, 아이를 너무 과잉보호하려고 해요. 좀 마음을 편안히 갖도록 기도해주세요.”

과잉보호라는 말을 들으니 저희 가정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주은이를 정말 과잉보호했었던거 같습니다. 육아 관련된 지침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거 같고, 또 무슨 이유인지 아이에게는 무조건 유기농 음식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둘째는 완전히 달라지더라구요. 첫째에게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돌이켜보면, 그 모든 행동들이 그냥 본능적이었던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소중한 우리 아이를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이자 성경적인 연민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았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았으며...

나그네 되신 것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본능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이었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냥 마음이 움직여서 한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연민’—compassion—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신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다른 기준이 있기를 바랄때가 있지는 않던가요?

글로벌 감리교회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건전한 교리를 지켰는가.

어떤 죄들을 피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사람들아, 와서 내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35 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으로 삼으신 것은, 신학적 정확성도 아니고, 특정 교단 소속도 아니고, 도덕적 우월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바로 **연민의 마음과 그 실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 가지 연민의 행동**을 언급하십니다:

1. 주린 자에게 먹을 것 주기
2.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주기
3. 낯선 자를 환대하기
4. 헐벗은 자를 입히기
5. 병든 자를 돌보기
6. 갇힌 자를 찾아가기

생각해보면 이 중 어느 것 하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굳이 신학교 졸업장을 딸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목 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데 특별 세미나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단지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 그 아픔을 느끼는 마음, 또 그것에 반응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v. 40)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연민의 마음이 곧 구원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염소들을 한 번 생각해볼까요?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은 그들이 행한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받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양들과 달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곧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그들에게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수들을 향해서도 욕을 퍼붓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그들을 찾아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병든 자를 미워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그들을 향해 신경 쓰지도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실천하지 않은 연민은 곧 연민없음이라고 봐야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것을 개인적인 일로 여기신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v. 45)

마더 테레사가 한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장한 예수입니다.” 여기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인도 캘커타 거리에서 죽어가던 이들, 나병 환자들, 가난한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보셨을 사람들을 나도 보고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울어줄 사람을 위해 나도 울어주고 있는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살아가신다면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사람들, 먹이셨을 사람들, 찾아갔을 사람들을 만나고, 먹이고, 찾아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혹시 요즘들어 내 눈에 눈물이 너무 메말라 있는게 아닌가요?

내 마음과 내 삶 속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정말 따르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남들을 섬기고 먹이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지를 돌아보라는 부르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정말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다면” (롬 6:11), 그러한 연민의 마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흉내 낼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조금도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님을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연민의 삶의 **완전한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배고팠을 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셨지요.

우리가 목말랐을 때, 그분은 **영원한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낯선 자였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었을 때, 그분은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병들었을 때, 그분은 **그의 피**로 우리를 **치유**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에 눌러 있었을 때,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주셨습니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8).

그러니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행하셨다”의 의미로 그치지 않습니다—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민의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이제 그분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따라서 연민은 단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 이상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실제적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다스리시며 살아가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민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가 아닌가는 곧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려주는 신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5:31–46 은 단순히 마지막 때에 찾아올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우리의 영적 깨어남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과연 연민이 내 마음에서,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가?

심판의 날에, 예수님은

“그래서 너는 위대한 커리어를 쌓았니?”

“신학적으로 모든 걸 완벽히 이해하고 있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았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보았느냐?”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보았느냐?”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나를 사랑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정말 네가 내 안에 있니? 정말 내가 네 안에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연민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게 아닙니다.

연민의 마음은 내가 왕 되신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왕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딕 이스트랜드 캠프 디렉터는 연민의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을 구하려다 생명을 잃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손자가 자신의 할아버지의 죽음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자연사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방식이 유일했을 거예요—그토록 사랑하고 돌보던 아이들을 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굳이 살려주시고자 은혜 베푸시고, 흘리지 않아도 되는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연민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누군가를 도울 때도, 하물며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을 대할 때도 연민의 마음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엄마가 당연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자녀에게 좋을 것을 주고 싶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마음으로, 저들을 돕지 않으면 안될까 같은 열정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에 예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기 위해 나를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에 찢리지 않는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너무 부족하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계시구나.

내 마음이 너무 차갑구나.

내 눈에 눈물이 너무 메말랐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다같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주세요. 제 죄를 씻어주시고, 제 마음에 연민의 불꽃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스미스채플이 그런 연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볼 수 있는 몇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민의 마음이, 연민의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민의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둘째--이번 주 한 사람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연민의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매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극히 작은 자들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넷째--여러분의 제자의 삶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지식을 늘리는 차원의 신앙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민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계시다면 이런

질문을 하십시오: “나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점점 예수님의 연민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졌을 때도,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눈물이 마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에, 주님을 지나쳐 간
 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연민의 참된 본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주셨고, 주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자비의 불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낯선 자를 환대하며, 병든 자를 돌보고,
 갇힌 자를 찾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하게 하소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